

건강을 지키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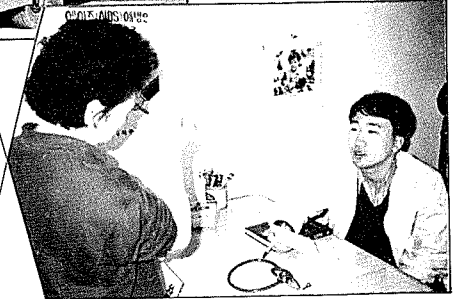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종합검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종합건강검사 받는날”

▽ 진료소 안에서의 검사 실시



▽ 환자와 문진하는 공중보건의 서기원씨(사진우측)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한달간 북제주군의 21개부락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북제주군 보건소의 요청으로 '90년부터 시작된 이 순회검진은, 올해만 360여명을 검사해 꽤 많은 유소견자를 발견해 치료를 알선하는 등 활발한 검진활동을 전개하여, 병원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던 오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오늘은 종합 건강검사 받는 날”이란 플랭카드가 붙은 검진버스를 이끌고, 농어촌 오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건협 제주도지부의 건강검사 현장을 따라가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환상의 드라이브코스, “제주의 아스팔트”

“오늘은 종합 건강검사 받는 날”

검진버스 11호에 붙어있는 플랭카드가 제주 특유의 거센 바람에 힘차게 휘날린다. 3월 4일 아침 8시 30분, 드디어 7명으로 구성된 우리 검진팀 일행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일로 덕천리를 향해 달린다.

제주도의 맑은 아침 햇살은 상큼한 바다 내음과 더불어 한껏 싱그럽다. 더구나 잘 닦여진 제주의 아스팔트 길은 서울로 치면 섬 전체가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다.

• 오늘은 종합건강검사 받는 날

제주시를 빠져나와 40분 남짓 달려서 멈춘 곳이 오늘의 검진 부락인 구좌읍 德川

오경애 덕천리
진료소장의 열의
덕분에 지역 주민의
검진에 대한
관심은 유난히
높았다.



리, 이곳 마을은 77가구에 인구수는 302명이다.

오경애(吳慶愛, 33세) 진료소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으면서 또박 또박 덕천리 현황을 알려준다.

『이렇게 오지 주민건강을 위해서 먼 곳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검진을 위해서 우선 가가호호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필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성인병에 관한 비디오 상영 등 보건교육도 했고 검진 전날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시절을 최대한 이용, 널리 알려드렸지요.』

한려전문대 간호학과 출신인 오경애 진료소장은 차분하면서도 열의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지 주민 20여명이 이미 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었다.

진료소안에 우선 간이 검사소를 마련하고 가져간 의료기기를 배열하는 등, 우리 직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하나하나 맡은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출장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헌신사람. 이들이야말로 읍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하고 기자는 남다른 감회에 젖어 보기도 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고송구 검사소장의 검사 전 주의사항과 건강검사의 필요성 등 홍보교육을 듣고 나서 검사는 시작되었다.

• 병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식도 커졌다.

김영식(金英植, 58세) 里長은 힘주어 이야기한다.

『이런 건강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평생동안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주사한번 맞아보지 못한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종합검사의 의의가 큼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을 미리 예방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부녀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장년층 남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음, 과로,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혹시 자기의 간장, 위장이 나빠지

연 1회 정도는
이런 검사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순회 검진에서는
유난히 많았다.



지 않았나 하고 미리 검사를 해 보는 것이지요. 하하하…」

보건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에 자기 자신도 놀랐다면서 그는 매년 한번씩의 정기 검사를 강조하기도 한다.

• 매년 농어촌 주민 위한 검진기회가 주어졌으면…

조지순(趙芝順, 58세) 할머니와 송청자(宋靑子, 52세)주부, 현영숙(玄英淑, 40세) 주부, 강일심(姜一心, 43세)주부 등도 이구동성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검진팀이 오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꼭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행정당국에 요청하고 싶어요. 농어촌에는 이렇게 좋은 검진시설이 없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해요. 개인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하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어요. 더구나 집의 아이들도 꼭 검사를 해주고 싶는데 일요일이나 집에 있으니 어찌합니까?』

조만간 학교에서도 건강관리협회에서 빈혈, 간염,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

건강을 지키는 현장

이라고 설명하자 姜一心주부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 성인병 주민 집단검사, '90년부터 시작해 막대한 성과 거둬

北濟州郡 보건소장 金熙培씨는 복제주군민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오지 주민을 위한 종합 검진사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성인병 주민 집단검사 사업은 이미 90년도부터 건협에 의뢰해서 막대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돌 볼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이미 21개부락 356명을 검사해서 28.6% 이상소견자를 발견, 저희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치료토록 알선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는 오지 주민들이 병·의원에 가는데 드는 시간과 교통 불편 등을 조금이나



마 덜어 주기 위하여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 노인 무료검진, 지역 주민 건강교육도 실시

복제주군 보건소는 검진사업 이외에도 군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펼쳐서 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복제주군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 고아원, 양로원, 아기의 집, 소년원 등의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교육을 확대 실시, 전주민을 대상으로 7개 읍면을 돌면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때에 소변 및 기타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이외에도 무의탁노인과 거동불능자 48명을 가정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하고 여름에는 방역소독실시, 소독약품, 영양제들을 배급해서 도와주고 있다.

서울 같으면 잘 가꾸어진 정원같은 제주도이기에 아담하게 서있는 관목수의 경관을 음미하면서 나의 숙소로 돌아오는 마음이 한결 따스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